

미니인터뷰 - 이한수 대구광역시회 회장

## 설비건설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설비공사 중요성 및 분리발주 타당성 적극 홍보

우리 대구지역은 IMF이후 청구, 우방, 보성 등 지역 대표 건설업체가 몰락하고 서울·경기 등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대구 진출로 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 주요 발주기관의 발주물량 감소와 신축공사의 BTL 전환으로 수주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그나마 수주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원사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전 회원사와 사무처 직원이 합심하여 지혜롭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 □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과 채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대구광역시회는 회원사와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



▲ 설비건설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대구지역 주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설비공사의 중요성과 분리발주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이한수 대구광역시회 회장

역시의 「지역건설산업 진흥계획」에 의한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현재 60~70%에서 80%이상으로 인상토록 대구광역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무리한 견적요구 지양과 대물변제 금지, 자재급등에 따른 손실보전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게는 심화되고 있는 덩핑수주를 지양하고 품질시공으로 공사비 제값받기가 정착이 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 대구광역시 분리발주 추진

대구광역시회는 2005년 10월에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교육청의 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통합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회는 대구광역시 본청 뿐 아니라 산하본부,

“「지역건설산업 진흥계획」에 의한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현재 60~70%에서 80%이상으로 하도록 대구광역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무리한 견적요구 지양과 대물변제금지, 자재급등에 따른  
손실보전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게는 심화되고 있는 덤핑수주를 없애고 품질시공으로  
공사비 제값받기가 정착이 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공사, 공단, 구·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비공사 분리발주 만이 우리업계의 독자성확보의 준거가 되는 만큼 설비업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대구광역시와 주요 발주기관, 유관기관에 설비공사의 중요성과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 설비업계 위상제고에 앞장설 것

여러 건설공종 중에서 우리 설비공사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토목, 건축의 도급업체로 인식되어 있으며 전기업계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회는 설비업계의 신뢰도 향상과 위상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주요 경제관련단체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설비공학회와 친환경설비학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도 기계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기계설비 관련대학에서 우수한 설비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산학협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설비건설인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건설용어 한마디

###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이 갈수록 증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턴키 방식의 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사업.

민간사업자가 주도해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기간 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해 투자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설→양도→운영’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시설물을 설계·시공한 뒤 주무관청으로부터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과 다르다.

사회기반시설 가운데서도 수익 확보가 비교적 유리한 도로, 철도, 항만, 터널, 공항, 댐 등의 건설에 주로 적용된다.